

청소년의 자기애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The Influence of Adolescent Narciss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Jung chul sang

Department of Youth Cultural Counseling,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을 통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7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개념 명료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료성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자기애 성향자의 특성에 따라 상담 및 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한 전문성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influence of overt narcissism and covert narcissism in adolescents up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self-concept clarify. Regul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over the period from November 4 to 22, 2019. A total of 47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analysis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statistics suit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vert and overt narcissism of adolescent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self-concept clarity. Second, the self-concept clarity of adolescents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rd, the covert and overt narcissism of adolescents had a negativ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overt/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concept clarity all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is research has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influence of the self-concept clarity up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relation to the overt and covert narcissism of adolescents, so that the study findings provide a wider understanding of the adolescents who have difficultie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ile helping enhance expertise in the counseling and education curriculu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narcissists.

Keywords : Adolescents,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concept Clarity

*Corresponding Author : Jung chul sang(Hoseo Univ.)

email: campkorea@hanmail.net

Received April 1, 2020

Accepted July 3, 2020

Revised May 11, 2020

Published July 31, 2020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 그리고 사회적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사회적 발달에 있어 대인관계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 청소년상담지원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018년 8.9%△/2017년 대비). 이 중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건수가 약 26.3%(1,329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년대비 5.8%증가 추이를 나타냈다[1]. 이와 같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하지만, 그중 친구동료(44.1%) 또는 어머니(28.9%)와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과정에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변인 중 하나로 자기를 들 수 있는데, 자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자기에 대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발달시기 중 중요한 심리적 요소이다[3]. 자기가 높은 청소년들은 '분노, 적개심, 공격성' 등의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외현적 자기와 내현적 자기를 보임으로써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외현적 자기는 DSM에서 진단준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허영심, 특권의식,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며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보인다[4]. 반면 내현적 자기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민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평가 받을 상황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5].

그러나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이라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쉽게 분노나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들의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6].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존중감, 긍정 정서의 경험, 외향성 등과 정적으로도 관련성이 있으며, 우울, 불안, 부정 정서의 경험 등과 부적 상관을 보이기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김유영(2014)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8],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들이 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환경을 인지하여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의 자기에 발달은 정상과 병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정상에서 병리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자기애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다[9]. 이런 이유로 청소년의 자기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부정적인 측면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에,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에

'자기애'를 심리학적으로 제일 처음 개념화한 사람은 Freud(1914)로, 그에 의하면 유아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일차적 자기를 지닌다[11]. 일차적 자기는 유아가 겪는 정상적인 발달단계이다. 유아는 점차 타인과 애정을 주고받는 대상(Object love)을 경험하면서 보다 성숙한 이차적 자기를 발달시키게 된다[12]. 한편 자기에 대한 이론은 대상관계 이론가인 Kernberg와 자기심리학의 창시자인 Kohut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먼저 Kernberg(1975)에서는 자기애적 자기관 정상적 발달상의 자기가 아닌 병리적으로 융합된 과장된 자기라고 하였으며, 병리적으로 융합된 자기관 이상적 자기, 이상적 대상, 실제 대상의 혼합물이라고 하였다[13]. 게다가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과도하게 스스로에게 몰입하고, 야심이 강하고, 웅대한 내용의 공상을 잘 하며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지혜와 권력,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함께 자존감이 높으면서도 타인의 주의와 존경을 바라는 모습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12].

또한 Kohut(1971)에서는 자기애적인 모습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던 중 타인의 반응이 필요한 단계에서 발달이 정지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아이의 자기 과시적인 표현에 적절한 확인과 칭찬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이가 이상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지 않을 때, 자기의 발달 과정이 멈추는 고착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이때 아이는 정상적으로 지니고 있던 과대한 자기상과 이상화된 부모상을 분리하지 못하고 이

들을 융합하여 웅대한 자기상을 만들어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게다가 주변사람들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비현실적으로 웅대한 모습과 지나친 자기 존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14].

2.2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이 만족감과 안전감을 찾아간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성격은 대인관계의 상황에서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과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으로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15]. Heider(1964)는 대인관계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보편적 심리적 지향성으로 보았다[16].

원만한 대인관계는 정체감 확립과 건전한 성격발달을 도모한다[17]. 뿐만 아니라 애정 및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등 사회적 존재로서 지니는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다[18]. 이런 친밀감의 욕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19]. 따라서 학교생활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계와 밀접한 접촉이 심리적 영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인관계가 큰 의미를 가진다[20].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면 정서적 지지망이 구축되어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 극복을 돕는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며,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시킨다[21].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은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켜 개인의 발달 지연 및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정서문제, 스트레스를 유발해 개인의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22]. 따라서 청소년기에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3 자기개념 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란 개인의 자기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특히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으면 외부의 사회 상황과 단서들에 의해 취약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해 특히 외부의 단서들이 위협적이고 부정일 때 더 쉽게 부적 정서상태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한편 Campbell(1990)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C)로 측정할 결과, 이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23]. 국내 연구인 김대익(1998)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시간 경과에 대한 안정성을 보이며, 한국에서 보편으로 일반화하여 활용 가능한 개념임이 입증되었다[24]. 이러한 자기개념 명확성과 같이 자기 지식의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누구나 자신에 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정도는 자기 존재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25].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존중감, 긍정 정서의 경험, 외향성 등과 정적으로도 관련성이 있으며, 우울, 불안, 부정 정서의 경험 등과 부적 상관을 보이기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이러한 Campbell 외(1996)의 연구 결과[26]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 복잡성 등 자기와 관련된 지식의 인지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심리 건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7].

2.4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해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기애'는 일반적으로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양상에 따라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뉜다[28]. '외현적 자기애'는 DSM에서 진단준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자각, 허영심, 특권의식,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며 착취적인 대인관계 등이 특징이다. 또한 자기애가 높을수록 분노표현이 증가하며[4], 전체 적대감, 폭력, 의심, 언어적 적대감 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Bushman과 Baumeister(1998)의 실험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자기애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0]. 박정민(1998)의 연구에서도 자기애적 성향과 지배성, 공격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고, 특히 권력욕구가 높고 타인에 대한 지배성이 높을수록 적대감, 흥분성, 의심 등과 같은 공격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내현적 자기애'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구조나 역동체계가 자기애적인 사람으로,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쉽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지만 자신에 대한 병리적 웅대성이 특징이다. 그래서 내현적 자

기에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연민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평가 받을 상황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나는 상처받아서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못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내면의 심리적인 구조나 역동 체계를 가진 사람을 자기애적 사람이라고 정의한다[32].

그러나 '자기애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Rose(2002)는 외현적 자기애가 방어적인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고양을 통해 이득을 얻지 못함으로써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욱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역기능적이라고 하였다[33].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민경과 김종남(2010)의 연구에서도 외현적 자기애보다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보다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을 보였는데[34],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분노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분노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억압하기 때문이다[35]. Wink(1991)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타인의 행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과민함,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타인의 평가에 대하여 민감하고 취약하여 대인관계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7]. 즉,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에 따라 자기평가와 자기귀인 양식을 통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예측할 수 있다[38].

청소년이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은 학교로서,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는 추후 건강한 성인으로 발돋움하는데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신현진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높고, 교사와는 낮은 수준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39]. 특히 자기애 중에서 권위의식과 우월감이 친구관계와의 상관성이 높고, 특권의식과 자기찬미는 교사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가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교사와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취약한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은 두려움이나 애착을 보이며 높은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한다[40].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분노, 적개심, 공격성' 등의 부적응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외현적 자기애자들보다 더 역기능적으로 정서를 경험한다. 그래서 내현적 자기애를 외현적 자기애보다 병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까지는 내현적 자기애의 부정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덜 부적응적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외현적 자기애자들 또한 기저의 심리적 체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외현적, 내현적 성향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자기개념 명확성'이란, 자기개념에 있어 보다 구조적인 측면으로 개인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규정되고, 내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으면 외부의 사회적 상황과 단서들에 대해 취약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특히 외부의 위협적이고 부정적인 단서들에 대해서 더 쉽게 부정적 정서 상태가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분노, 두려움, 불안 등 개인의 정서와 관련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신경증 척도들과 강한 부적상관을 보인다[26].

앞서 정의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연구 중에서 Stuck과 Sporer(2002)는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로,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이라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쉽게 분노나 공격적 반응을 보여 자기애 성향이 높더라도 자기개념명확성 수준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하였다[41].

강선영(2011)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 모두 부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42], 안연옥(2013)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은 타인의존 자기애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43]. 그러나 강일선(2005)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현적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4], 김혜경(2010)에서도 자기개념명확성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준득 외(2007)는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 집단과 통제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높은 상관성이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46].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념명료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병리적 특징이 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상관관계 결과는 선행연구들 간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기애가 높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은 자기애가 높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집단과 자기애가 낮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보다 부정정서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45, 47].

요컨대, 청소년기에 자기애적 성향이 높았을 때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결합되면 부정적 정서에 취약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관적이지 못한 자기개념과 불안정한 특성은 행동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안정되고 일관적인 자기개념 명확성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어 부정적 정서경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8].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적응과 강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49], 이에 대한 확립이 17~18세 전후로 통합되고 안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자기개념 명확성의 발달에 있어 청소년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29]. 특히 한국과 같은 동양의 집단적인 가치(collectivism)를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유지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행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50].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김유영(2014)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과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8]. 이는 자기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일수록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1].

자기애적 성향과 대인관계 사이에 자기개념 명확성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긍정적 보호요인으로 사용되는 자아탄력성, 인지조절, 자아존중감 또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기애적 성향과 대인관계 사이에서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호요인이 매개하여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2-53].

강선영(2011)에서는 자기애적 성향의 부정적 발달 산물로서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과 분노 억제에 대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기능을 연구한 결과,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의 상관관계가 외현적 자기애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42]. 그러나 공격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공격성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고 하였다. 이는 자

기개념 명확성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여겨 상대방을 쫓아내리고 자기상을 재구축한다고 하였다. 강일선(2005)의 연구에서도 자기애 수준이 높음과 동시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의 특성 분노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4]. 따라서 자기애 성향자의 높은 분노나 공격성 수준에 대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현적 자기애의 공격성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내현적 자기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임지영(2011)에서는 청소년의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집단 간 차이에 따라 분노 행동양상을 연구하였다[54]. 그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남학생집단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남학생집단보다 분노상황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자기표현은 적었으나 분노감정의 직접표출은 많아 자기개념 명확성에 따라 분노감정을 경험할 때 비공격적, 기능적 대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남학생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 따라 분노표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은 기본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어서 소심하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위축되어 있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다하더라도 분노상황에서 위협을 크게 지각하고 적대적이 되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과 유사한 분노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에 따라 분노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자기개념 명확성의 기능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애와 또래관계에 대해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애 또는 내현적 자기애 중 하나만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애의 두 하위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상단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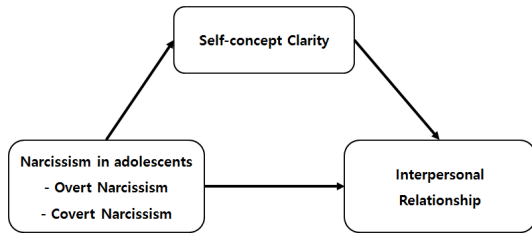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H1. 청소년의 자기에겐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에겐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겐 자기개념 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청소년의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청소년의 자기에겐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에겐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겐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청소년의 자기에겐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현적 자기에 척도는 자기에적 성격검사지(NPI)로 Raskin & Hall(1979)이 제시한[55]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에적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근거하여[56],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측정도구이다. 강제선행의 이분법적 검사도구로서 초기에는 5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후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분석을 거쳐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하여 발표하였다[57]. 본 연구에서는 황순택(1995)이[58]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자기에성 성격장애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사용한[59] 류경희(2014)의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60].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척도에 대해 연구 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15문항(자기중심성 7문항, 응대성/자기 칭찬과 주목의 욕구 6문항, 과장된 자기지각 2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기중심성 .879, 응대성/자기칭찬과 주목의 욕구 .877, 과장된 자기지각 .817, 외현적 자기에 전체는 .945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61]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28], 총 45문항의 5점 Likert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격이 강함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 하위척도를 도출하였으며[61], 이를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2요인)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3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인정욕구/거대 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7문항과 내현적 자기에만의 고유요인(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 6문항으로 나눈 척도에 대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양호한 13문항만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공통요인 .942, 고유요인 .930, 내현적 자기에 전체는 .966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는 Campbell 외(1996)의 연구에서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 내적 일관성, 안정성들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 도구로, 처음에는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분석을 거쳐 12문항으로 축약되었다[7].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24], 이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양호한 8문항만 선별하여 Likert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자기개념 명확성 .706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척도는 Parker와 Asher(1993)가 제작한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질문지(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FQQ)를 기초하여[62], 김형태(1989)가 개발한 척도를[63] 문항분석으로 재구성한 민정숙(2012)의 연구에서 측정된 문항을[64]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영역은 2개의 영역으로 또래관계 7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또래관계 .818, 교사관계 .744, 대인관계 전체는 .842으로 나타났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소년기를 정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이하)을 고려해, 일반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총 500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되었고, 설문 소요 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이며 응답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에 대한 실시는 각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구에 대한 목적을 설명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배포한 500부중 492부를 회수,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 자료 22부(4.5%)를 제외하여, 최종 유효 표본을 470부(95.5%)로 결정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남성이 46.8%(220명), 여성이 53.2%(250명)로 여학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이 39.6%(18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35.1%(165명), 고등학교 3학년 25.3%(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자기중심성, 웅대성, 과장된 자기지각), 내현적 자기에(공통요인, 고유요인),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또래관계, 교사관계)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분석 결과 성별에 대해서는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t=-3.269, p<.01$)과 고유요인($t=-3.922, p<.01$)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인식한 것을 확인하였다. 학년에 대해서는 내현적 자기에의 공통요인($t=-3.269, p<.01$)과 고유요인($t=-3.922, p<.01$)에서 2학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사후분석(Scheffe) 결과 1학년 집단보다 2학년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Table 1. Difference tes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1	2	3	4	5	6	7	8
Sex	Man	M (SD) (.594)	2.00 (.652)	2.05 (.798)	1.72 (.746)	1.69 (.735)	3.53 (.523)	3.67 (.631)	3.85 (.561)
	Woman	M (SD) (.636)	2.07 (.654)	2.00 (.762)	1.98 (.930)	2.00 (.930)	3.49 (.523)	3.62 (.639)	3.91 (.537)
t/F		1.132	.351	.666	-3.269**	-3.922**	.963	.758	-1.166
p		.258	.726	.506	.001	.000	.336	.449	.244
Grade	1st	M (SD) (.618)	1.97 (.672)	1.96 (.755)	1.70 (.743)	1.69 (.706)	3.53 (.551)	3.66 (.664)	3.93 (.573)

2nd	M	2.07 (.586)	2.19 (.630)	2.12 (.812)	2.01 (.931)	2.00 (.919)	3.46 (.506)	3.59 (.579)	3.84 (.518)
	3rd	M (SD) (.640)	1.96 (.638)	2.14 (.762)	1.99 (.882)	1.90 (.941)	1.93 (.497)	3.55 (.661)	3.69 (.550)
t/F		1.501	1.763	2.032	6.057**	6.334**	1.334	1.086	1.356
p		.201	.136	.132	.003	.002	.264	.339	.259

*** $p<.001$, ** $p<.01$, * $p<.05$

Overt narcissism=1: Self-centeredness, 2: Magnificence, 3: Exaggerated self-perception

Covert narcissism=4: Common factors, 5: Unique factor

Self-concept clarity=6: Self-concept clar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7: Peer relationship, 8: Teacher relations

4. 연구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기준치 0.7, 0.5이상으로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45.869(p=.000, df=15)$, GFI=0.976, CFI=0.988, NFI=0.983, IFI=0.988, RFI=0.968, TLI=0.978, RMR=0.017, RMSEA=0.066으로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으며,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648에서 0.968로 나타나고 있어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을 증명하였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Cron bach' s a
Overt narcissis m	→ Self- centeredness	.950	Fix	-	.965	.903	.945
	→ Magnifice nce	.910	.030	34.118***			
	→ Exaggerat ed self-perce ption	.862	.039	29.718***			
Covert narcissis m	→ Common factors	.968	Fix	-	.969	.941	.966
	→ Unique factor	.951	.035	27.715***			

Self-concept clarity	→ Self-concept clarity	.857	Fix	-	.786	.786	.706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Peer relationship	.754	Fix	-	.850	.740	.842
	→ Teacher relations	.648	.069	10.771***			

*** $p < .001$, ** $p < .01$, * $p < .05$

4.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본 연구는 외현적 자기에(자기중심성, 웅대성, 과장된 자기지각), 내현적 자기에(공통요인, 고유요인), 자기개념 명확성, 대인관계(또래관계, 교사관계) 간 관계 분석을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0.230~0.762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으며,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척도와 왜도가 ± 2 를 넘지 않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1	2	3	4	5	6	7	8	
1	1								
2	.762**	1							
3	.722**	.686**	1						
4	.497**	.472**	.428**	1					
5	.469**	.498**	.398**	.720**	1				
6	-.288**	-.273**	-.230**	-.256**	-.263**	1			
7	-.447**	-.429**	-.378**	-.271**	-.296**	.426**	1		
8	-.389**	-.389**	-.337**	-.229**	-.242**	.355**	.489**	1	
Mean	1.97	2.08	2.02	1.86	1.86	3.51	3.64	3.88	
SD	.617	.653	.779	.858	.857	.523	.635	.549	
Descriptive Statistic	skew	-.252	-.036	-.347	-1.11	-1.07	-0.376	-.107	-.244
	kurtosis	-.380	-.469	-.380	.821	.842	1.370	-.059	-.108

*** $p < .001$, ** $p < .01$, * $p < .05$

Overt narcissism=1: Self-centeredness, 2: Magnificence, 3: Exaggerated self-perception
Covert narcissism=4: Common factors, 5: Unique factor
Self-concept clarity=6: Self-concept clar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7: Peer relationship, 8: Teacher relations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 = 47.418(p = .000, df = 16)$, GFI=0.975, CFI=0.988,

NFI=0.969, IFI=0.988, RFI=0.982, TLI=0.979, RMR=0.018, RMSEA=0.065 등으로 나타나 χ^2 , GFI, CFI, NFI, IFI, RFI, TLI, RMR, RMSEA 등의 적합도 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Table 4. Research model fit

$\chi^2 (p)$	df	GFI	CFI	NFI	IFI	RFI	TLI	RMR	RMSEA
47.418 ($p=0.000$)	16	.975	.988	.969	.988	.982	.979	.018	.065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 보면,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외현적 자기에는 자기개념 명확성($\beta = -.363, p < .001$)과 대인관계($\beta = -.188,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내현적 자기에도 자기개념 명확성($\beta = -.265, p < .01$)과 대인관계($\beta = -.187, p < .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대인관계($\beta = .972,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Overt narcissism	→ Self-concept clarity	-.363	.050	-3.756***	.000	Sig.
Covert narcissism	→ Self-concept clarity	-.265	.035	-2.763**	.006	Sig.
Self-concept clarity	→ Interpersonal relationship	.972	.179	8.552***	.000	Sig.
Overt narcissism	→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9	.080	-2.338*	.019	Sig.
Covert narcissism	→ Interpersonal relationship	-.187	.055	-1.981*	.048	Sig.

*** $p < .001$, ** $p < .01$, * $p < .05$

다음 (Table 6)은 자기에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와 대인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였고($p < .05$), 간접효과와 총효과도 모두 유의수준 $p < .01, p < .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에 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elf-concept clarity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Overt narcissism	Self-concept clar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9*	.019	-.353*	.001	-.582*	.000
Covert narcissism			-.187*	.048	-.258*	.004	-.445*	.000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해 매개효과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65],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매개효과는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Sobel-test result of self-concept clarity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Overt narcissism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57***	.000
Covert narcissism		2.661**	.008

*** $p < .001$, ** $p < .01$, * $p < .05$

5. 결론 및 고찰

청소년은 한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아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고, 기능적인 대인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개념 명료성을 통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와 자기개념 명확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최민경과 김종남(2010)의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34]. 즉,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에게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는 특성이 있고[4], 내면에 스스로 하는 행동에 있어 자신에 대한 사

랑과 보호가 지나치게 반영되어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66],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강선영(2011)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현적 자기애와 부적관계를 갖는다는 연구와 일치한다[42]. 즉,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보호에 대한 의지가 과도하여 높은 자존감을 토대로 자기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는 대인관계와 자기개념 명확성에 각각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수준이 낮다는 결과는 정남운(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37]. 이는 자기애적 성향이 병리적적이지 않다면 오히려 적응적인 면을 보일 수 있지만,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억압하는 성향을 보여 병리적인 현상을 보여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67].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이 자기개념 명료성이 낮다는 선행연구들[41, 46]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자의 특성이 자기중심적이며, 자존감이 낮다는 점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의 결과가 기존의 선행 연구와 공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을 볼 때,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애와 대인관계 간에서 미치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개념 명확성이 청소년의 외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사이에서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관계를 자기개념 명확성이 매개한다는 연구결과[42]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를 가진 청소년은 자존감이 높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68], 이러한 성향으로 하여금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의 사이에서 매개효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이 모호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정보를 구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69], 높은 수준의 자기개념 명확성이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사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정되고 일관

적인 자기개념 명확성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어 부정적 정서경험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8]. 내현적 자가를 가진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 자기애적인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있어서 소심하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위축되어 있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내현적 자가를 지닌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외현적 자가에, 내현적 자가와 대인관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외현적 자가와 내현적 자가의 성향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외현적 자가를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자존감이 높은 점을 강점으로 하되 공격성과 분노를 조절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훈련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내현적 자가를 가진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수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치료 및 자존감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간접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외현적의 특성을 각각 분리하여 자가와 관련이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대인관계의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혔다.

둘째,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가와 대인관계 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또는 치료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자기개념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외현적 자가, 내현적 자가를 가진 청소년 모두에게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외현적 자가를 가진 청소년에게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프로그램 교육 시, 충동성 및 공격성을 절제하고 긍정적인 표현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을, 내현적 자가를 가진 청소년에게는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통해 현실적이고 건강한 자존감을 배양하여 보다 적극적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의 교육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혀냄

으로써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가에 성향자의 특성에 따라 상담 및 교육의 커리큘럼에 대한 전문성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 청소년의 특성 상,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주관적 판단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항에 영향을 받아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자가에는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등의 수준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별 차이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uth counseling support status 2017-2018*, 2019.
- [2] Statistics Korea, *Social survey: A subject of youth concern counseling*, 2018.
- [3] S. Y. Lee, M. S. Yoo, *Relationship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with agg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7), 101-128, 2014.
- [4] F. Rhodewalt, C. C. Morf,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No.3, pp.672-685, 199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4.3.672>
- [5] S. M. Kwon, S. J. Han,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eoul: Hakjisa, 2000.
- [6] J. O. Kang, *Effect of adolescents' covert/overt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on aggressiveness*. Master's Thesis,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of Korea, pp.23-24, 2009.
- [7] J. D. Campbell, P. D. Trapnell, S. J. Heine, I. M. Katz, L. F. Lavallee, D. R. Lehman,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1, pp.141-156,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114>
- [8] Y. Y. Kim, *The influence of self-concept clarity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of Korea, pp.24-25, 2014.
- [9] E. Bleiberg,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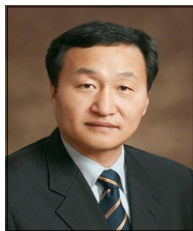
-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Vol.48, No.1, pp.30-51, 1994.
DOI: <https://doi.org/10.1176/appi.psychotherapy.1994.48.1.30>
- [10] B. H. Ahn,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and internalized shame on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f Korea, pp.18, 2011.
- [11] S. Freud, “On Narcissism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James Strachey*, Vol.14, pp.67-102, 1914.
- [12] J. W. Yang, S. M. Kwon,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narcissists with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5, No.1, pp.215-242, 2016.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6.35.1.011>
- [13] O. Kernberg,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s*. New York: Aronson, 1975.
- [14] H. Kohut,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 1971.
- [15] H. S.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orton, 1953.
- [16] F. Heider,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 Inc, 1964.
DOI: <https://doi.org/10.4324/9780203781159>
- [17] J. H. Chung, *The influenc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high-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of Korea, pp.11-12, 2016.
- [18]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3rd ed.)*. Delhi, India: Pearson Education, 1987.
- [19] H. W. Kim. *The relation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terpersonal probl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I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pp.27-28, 2016.
- [20] A. C. Park, *Youth and identity*. Gyeonggi: Education and Science History, 2008.
- [21] J. S.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licopter parenting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affect of shame and social self-efficacy, moderating effect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independence*. Master's Thesis, I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pp.7-8, 2016.
- [22] L. M. Horowitz, S. E. Rosenberg, B. A Baer, G. Ureno, V. S. “Villasenor,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6, No.6, pp.885-892,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56.6.885>
- [23] J. P. Campbell, *Modeling the performance prediction problem in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0.
- [24] D. I. Kim, *Self-concept clarity in Korea: Personality, self-consciousness and behavioral correlate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of Korea, pp.20-21, 1998.
- [25] R. H. Hoyle, M. H. Kernis, M. R. Leary, M. W Baldwin, “Selfhood: identity, esteem”, *Regulation*, pp.31-35, 1999.
DOI: <https://doi.org/10.4324/9780429305818-1>
- [26] J. D. Campbell, P. D. Trapnell, S. J. Heine, I. M. Katz, L. F. Lavalley, D. R. Lehman,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1, pp.141-156,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114>
- [27] J. D. Campbell, S. Assanand, A. D. Paula,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Vol.71, No.1, pp.115-140, 2003.
DOI: <https://doi.org/10.1111/1467-6494.t01-1-00002>
- [28] S. Akhtar, J. A. T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No.1, pp.12-20, 1982.
- [29] S. Harter,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30] B. J. Bushman, R. F. Baumeister,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5, No.1, pp.219-229, 1998.
DOI: <https://doi.org/10.1037/e552692012-026>
- [31] J. M. Park, *Relationship among narcissistic propensity, dominance and hostility of the juvenile delinquents*. Master's Thesis, Iwha Women's University of Korea, pp.17-18, 1998.
- [32] Han, S. M. Kwon, “Perceptual sensitivity of narcissists to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9, No.4, pp.1135-1143, 2010.
DOI: <https://doi.org/10.15842/kjcp.2010.29.4.012>
- [33] P. Rose,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3, pp.379-392, 2002.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162-3](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162-3)
- [34] M. K. Choi, J. N. Kim, “Moderating effect of adolescent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Tendency and interperson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5, No.4, pp.747-763, 2010.
DOI: <https://doi.org/10.17315/kjhp.2010.15.4.011>
- [35] S. H. Baek, M. H. Hyun, “Hostility,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in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7, No.4, pp.1001-1017, 2008.
DOI: <https://doi.org/10.15842/kjcp.2008.27.4.013>
- [36] P. Wink,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4, pp.590-597, 1991.

- [37] N. W. Chung,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3, No.2, pp. 221-237, 2001.
- [38] S. R. Park, *Self-evaluation and attributional style of overt-covert narcissis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14-15, 2004.
- [39] H. J. Sin, S. S. Kim, K. H. Suh, "Relationships between narcissism, self-esteem, interpersonal stresses, and social anxiety among children in early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10, pp.143-160, 2011.
- [40] K. A. Dickinson, A. L. Pincus,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ol.17, No.3, pp.188-207, 2003. DOI: <https://doi.org/10.1521/pedi.17.3.188.22146>
- [41] T. S. Stuck, S. L. Sporer,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Vol.70, pp.590-532, 2002.
- [42] S. Y. Kang, *Relations of career's overt-covert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with aggressivenes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of Korea, pp.32, 2011.
- [43] Y. O.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aggression: The control effect of self-esteem, self-esteem, and self-concept clarity*. Doctoral Thesis, pp.48-49, Dankook University of Korea, 2013.
- [44] I. S. Kang, *The effect of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on ange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pp.31-32, 2005.
- [45] H. K. Kim, *The Effect of narcissistic tendency and self-concept clarity on adolescents' anger*.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pp.43-44, 2010.
- [46] J. D. Lee, S. G. Seo, H. J. Lee, "Self-concept clarity and negative emotion in young adults with covert, Overt narcissistic featu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6, No.2, pp.463-477, 2007. DOI: <https://doi.org/10.15842/kjcp.2007.26.1.026>
- [47] J. H. Kil, *The effect narcissistic and self-concept clarity on aggress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pp.29-30, 2008.
- [48] S. K. Park, "The influence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on youth's angry thinking and expressions of wrath: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on", *Journal of Child-Family Therapy*, Vol.15, pp.17-31, 2017.
- [49] M. Bigler, G. J. Neimeyer, E. Brown,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0, No.3, pp.396-415, 2001. DOI: <https://doi.org/10.1521/jscp.20.3.396.22302>
- [50] M. S. Deiner, *Visual system and neuroendocrine hypothalamus development: Roles for the guidance cue netrin-1 and its receptor DCC*.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 [51] Y. S. Kim, H. C. Sin, "The influence of self-discrepancy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2, pp.745-760,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2.201204.745>
- [52] H. W. kim, J. Y. Lee, "Exploration of mediators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interpersonal problem among adolescents: Self-absorption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and Research*, Vol.25, No.1, pp.247-270.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7.25.1.012>
- [53] J. H. Hwang, *The influence of teenager's covert narcissism on peer relationship: Mediated by effect of self-esteem*.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pp.55, 2014.
- [54] J. Y. Lim, "Relationships of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with anger behavior among adolesc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2, No.3, pp.305-325, 2011. DOI: <https://doi.org/10.15753/aje.2011.12.3.013>
- [55] R. N. Raskin, C. S. Hall,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Vol.45, No.2, pp.590, 1979. DOI: <https://doi.org/10.1037/t00001-000>
- [5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DSM-III)*.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 [57] R. Raskin, H. Terry,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4, No.5, pp.890-902,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4.5.890>
- [58] S. T. Hwang, K. J. Oh, J. H. Choi, "Development of diagnosis criteria for personality disorder based on typical floor pla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255-271, 1995.
- [5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ition-revised(DSM-III-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 [60] K. H. Ryu,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t, covert narcissism and smart phone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of Korea, pp.26-27, 2014.
- [61] S. H. Gang, S. W. Ch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4, No.4, pp.969-990, 2002.
- [62] J. G. Parker, S. R. Asher,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Vol.102, Vol.3, pp.357-389,

1987.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2.3.357>
- [63] H. T. Kim, *A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the measurement of ego-identity in korean youth*. Doctoral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p.59-60, 1989.
- [64] J. S. Min, *The effects of teenager'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 on internet addiction*. Master's Thesis, Paichai University of Korea, pp.27-28, 2012.
- [65]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9,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66] M. J. Le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atterns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m: Through a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251-251, 2012.
- [67] H. M. Wallace, R. F. Baumeister, "The effects of success versus failure feedback on further self-control", *Self and Identity*, Vol.1, No.1, pp.35-41, 2002.
DOI: <https://doi.org/10.1080/152988602317232786>
- [68] C. Sedikides, E. A. Rudich, A. p. Gregg, M. Kumashiro, C. Rusbult,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7, No.3, pp.400-416, 2004.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7.3.400>
- [69] G. L. Flett, K. Vredenburg, P. Pliner, L. Krames, "Depression and social comparison information-seek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2, No.4, pp.473, 1987.

정 철 상(Jung chul sang)

[정회원]



- 2002년 3월 :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역량, 청소년 지도, 이벤트, 축제